

피난지 부산에서의 조산사 양성*

- 일신부인병원을 중심으로 -

이 임 하**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전후 조산사의 역할과 기대효과
- III. 1950년대 부산 일신부인병원 역할
 - 1. 좌춘동, L자형 병원 건축과 조력자들
 - 2. 병원 운영과 우유보급소
 - 3. 『일신부인병원』 연간 보고서에 기술된 부산지역 산모와 유아의 모습
- IV.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 1. 임상실습 위주의 조산교육
 - 2. 현지조사에 드러난 교육현황
 - 3. 졸업생 관리와 워크샵
- V 맺음말

* 본 논문은 ‘피란수도 부산의 의료생활사를 이야기하다’ 학술대회(2021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주최) 때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80743). 거친 글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지적한 부분들은 일부 수정했지만 개인적 능력이 따르지 못한 지점들은 그대로 두었다. 이는 향후 연구 활동의 문제의식으로 삼고자 한다.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imhalee@hanmail.net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부산’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염두 하면서 부산 일신부인병원의 조산 교육을 살펴본 것이다. 부산 일신부인병원(IL SIN Women`s Hospital) 관계자가 연간 보고서에서 ‘한국 유일의 조산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소개했듯이 일신부인병원은 1950년대 이론교육과 함께 임상실습이 가능했던 곳이다.

일신부인병원은 호주 장로교 파송 선교사인 제임스 노블 맥켄지와 메리 켈리의 딸들인 매혜란과 매혜영 자매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2년 2월 부산에 들어온 매혜란과 매혜영은 9월 17일에 일신부인병원을 개원했다.

전쟁으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1/3 가량이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이들의 양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런데 조산교육은 이론교육과 함께 임상교육이 병행되어야 했다. 일신부인병원이 내세운 강점 중 하나는 1인이 최소 20명 이상의 산모를 관리하고 출산을 관찰하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일신부인병원 조산 교육은 1954년 이후 자리 잡아갔다. 일신부인병원은 1950년대 산전·산후 관리와 산과 병상을 갖추었고 교육생은 전국 각지에서 조산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왔다.

부산 일신부인병원이 자리잡기까지 다양한 단체와 인물들의 지원이 있었다. 호주 장로교, AFAK, UNKRA, OEC, 미국과 호주에서의 다양한 기부품과 기부금, 미군 군의들, 부산미군군수기지사령부, 부산지역 병원들, 옥스팜 등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지원은 피난지 부산이 병참기지이자 임시수도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산교육생들은 일신부인병원 직원이었으며, 직원 중 이들의 비중은 1/3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간호사 자격을 갖춰 병원이 토대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위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지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부산, 한국전쟁, 피난, 조산사, 일신부인병원

I. 머리말

1951년 1월 3일에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고, 1월 4일에 미8군사령부는 유엔군 서울 철수를 발표했다. 이른바 1·4후퇴가 시작돼 피난민이 경상남북도로 몰려왔다. 이에 조병옥 내무부 장관은 부산은 병참기지, 대구는 후방기지라며 피난민 분산 대책을 발표했다. 내무부 장관은 대구 및 부산에 집중된 피난민을 각 도내 시군에 분산 거주 시킬 것을 경북도지사에게 지령했다.¹⁾

『한국전란1년지』에 따르면 경상북도로 유입된 피난민은 1951년 2월에 136만 명, 5월에 76만 명이었고, 경상남도 유입된 피난민은 1951년 2월에 53만 명, 5월에 51만 명이였다.²⁾ 경상북도 피난민의 유입과 유출은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경상남도 피난민의 유출과 유입은 전쟁동안 50-60만 명을 유지했다. 즉 전쟁동안 경상남도는 피난민의 유입과 유출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급격한 이동을 막았던 것이다.

경상남도로 유입된 50만 명 피난민 분포는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UNCACK)³⁾ 경상남도 팀의 주간보고서(1951년 7월 17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 7월 현재 경상남도 피난민 수는 461,570명이였다. 부산의 피난민 수는 266,268명으로 경상남도 피난민의 57.7%를 차지했다.⁴⁾

1) 『민주신보』 1951. 1. 16. ‘조병옥 내무부장관, 피난민 분산대책에 대한 담화 발표’.

2)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 1951, D34-35쪽.

3) 이하 UNCACK로 약함.

4) 『주간보고서』,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1951, Entry UNCACK Unit 11110, Box 21, Weekly Activities Report Month of July(3 of 5); 『narrative report for month of sep.1953』, RG 554, United Nations Command Adjutant General's Section,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Adjutant General Section, Entry A-1 1303, Team Reports, 1951~1953, Box 79; Mar; Kyongsang Namdo, sep. 53 1953.

1953년도 부산의 인구는 912,139명으로 유입인구는 295,068명이었다.

피난민 규모는 전전인구의 1/2에 해당했다. 당연히 주택난, 식수난, 일자리 난으로 부산은 몸살을 앓았다. 그렇지만 부산은 임시 수도요 보급품의 조달과 인력동원의 조건을 마련한 병참기지였다.

1951년 1월에 보건부 장관은 “부산시 전체를 DDT로 목욕시킬 작정이다”라고 발표했다.⁵⁾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 7월 부산 방역은 완벽에 가깝다. 경남의 일부 지역이 50% 미만일 때 부산에서의 두창, 발진티푸스, 장티푸스의 예방접종은 90-100%에 이르렀다.

그만큼 피난지로서의 부산의 위치는 경상남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남달랐던 것이다. 전쟁동안 부산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부산 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건은 ‘부산’의 장소성과 역사성이다. 전쟁동안 부산만큼 안전하고 물자가 넘쳐나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곳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쟁과 부산이 맺는 연관 관계이다.

부산 일신부인병원 관계자가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보고한 내용에서 ‘한국 유일의 조산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소개했듯이 일신부인병원은 1950년대 이론교육과 함께 임상실습이 가능했던 곳이다. 조산사들이 ‘일신’ 출신임을 자랑할 만큼 그 명성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전 지역의 간호사들은 조산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 좌천동으로 몰려왔는데 이는 부산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함께 이해해야만 풀릴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산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염두 하면서 어떻게 부산 일신부인병원이 전국적인 조산교육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신부인병원에 관한 연구는 『일신기독병원40년사』,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1952년부터 1970년 말까지』, 『1950년대 여성 전문 인력으로서의 조산사의 양성』 등이 있다.⁶⁾ 이들 글은 1950년대 일신부인병원

5) 『민주신보』 1951. 1. 23. ‘보건부장관 吳漢泳, 국민보건대책과 전염병 방지대책에 대해 언명’.

을 간략하게 소개했고 1960년대 이후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글을 기초로 일신부인병원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계기가 된 피난의 장소인 부산에서의 1950년대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일신부인병원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자료는 일신부인병원 관계자가 한국민사원조사령부(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 KCAC)와 경제조정관실(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OEC)에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보고한 연간보고서이다.⁷⁾ 보고서는 의료 업무, 직원, 재정, 건물(병원과 기숙사), 자문위원회, 조산교육, 부채와 자산, 연간 수입과 지출, 무료치료, 외래와 입원환자, 임신과 출산, 우유배급소 등의 현황과 통계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⁸⁾ 병원 운영은 매혜란이, 조산교육은 매혜영이 작성했다.

여기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해 첫째, 일신부인병원이 조산교육장으로 자리잡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병원 건축과정과 직원들 현황 그리고 입원환자, 외래환자, 무료치료 그리고 출산, 육아상담, 산전 산후 관리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간보고서에서 드러난 부산지역의 산모와 유아의 모습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조산교육과 졸업생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조산사 양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6) 일신기독병원, 『일신기독병원 40년사』, 1993. 김효진,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1952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연세의사학』 11-2, 2008. 이임하, 「1950년대 여성 전문 인력으로서의 조산사의 양성」, 『사회와 역사』 111, 2016.

7) 이하 KCAC와 OEC로 약함.

8)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49.

II. 전후 조산사의 역할과 기대효과

일신부인병원에서 제공하는 조산교육 과정에 들어올 적합한 간호사들을 찾는데 당신의 도움과 협력을 요청한다. 이곳은 더 많은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 간호사들, 또한 조산원을 개업하기 전이거나 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조산사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다음과 같다 : 학습은 6개월 과정으로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생활한다. 매일 1시간씩 출산 및 유아 간호 강의가 있는데 이는 실무훈련에 필수적이다. 모든 학생들은 산모 20명의 출산을 도우며, 출산 전후, 진통, 신생아와 조산아 등의 관리를 배운다.

한 학급의 인원은 10명으로 3개월마다 새로운 학급을 구성한다.

부산 좌춘동 517 일신부인병원 수간호사 앞으로 지원서를 보내주기 바란다.

지원서에는 ① 개인 이력, ② 졸업장 사본(간호), ③ 의료 감독관, 수간호사 또는 다른 책임자의 추천장, ④ 가슴 엑스레이를 포함한 보건증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이는 2월 1일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신청이며, 지원서는 1월 15일까지 제출한다.

학습하는 동안,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음식과 빨래 등은 제공된다. 유니폼, 침구류, 공책 등은 개인이 준비한다. 매달 약간의 용돈이 제공된다.

우리는 여러 병원에서 훈련받았던 여성들을 돕고 싶는데 그들과 접촉하는 일이 쉽지 않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당신은 이 과정을 널리 퍼뜨려주길 바란다. 만약 당신이 간호학교 출신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임산부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을 안다면, 우리에게도 알려주길 바란다.9)

9)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49.

이 문서는 1954년 12월 30일자로 보고된 것으로 C. Mackenzie라는 서명이 있다. 서명한 이는 캐서린 맥켄지(Catherine Mackenzie)로 한국 이름은 매혜영이다. 매혜영은 매혜란(Helen MacKenzie)과 함께 부산 일신부인병원의 설립자이다.¹⁰⁾ 매혜영과 매혜란은 호주 장로교 파송 선교사인 제임스 노블 맥켄지와 메리 켈리의 딸들로 한국에서 태어났다. 매혜란은 1938년 멜버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벤디고 기초병원에서 일했고, 동생인 매혜영은 1934년 멜버른 아동병원 부속 간호학교에 입학해 조산교육을 비롯한 영아 간호 교육을 이수했다.¹¹⁾

이들은 1952년 2월 부산으로 돌아왔다. 부산에 도착한 자매는 모자보건 사업 계획을 세웠으며 9월 17일에 일신부인병원을 개원했다. 위의 문서는 부산 일신부인병원 조산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에게 조산교육이 필요한 간호사를 소개시켜 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1954년 2월에 교육이 시작되는 4기생 모집을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조산교육이 시작된 지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조산교육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매혜영이 교육생 모집에 전력한 듯 하다. 편지에는 조산교육의 대상자, 교육과정, 모집기간, 지원서 내용 등으로 조산교육의 전반적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전쟁 중에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이들은 어떻게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호주 장로교의 지원, 매혜영과 매혜란의 적극적 활동이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병원을 개원하고 조산교육 과정이 정착하게 된 까닭은 장래 모자보건과 공중보건에서의 조산사 역할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쟁동안 공중보건에서의 조산사의 임무와 역할이 부각되었다.¹²⁾ 보건부장관 오한영의 보고에 따르면 전쟁으로 간호사의 1/3이

10) 대한병원협회, 『병원탐방 부산일신기독병원』, 『대한병원협회지』 13-10, 1984, 55쪽.

11) 김효진, 앞의 논문, 2008, 65쪽.

행방불명되었고 조산사들의 동향은 파악되지도 못했다.¹³⁾ 따라서 간호사와 조산사의 양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런데 조산교육은 이론교육과 함께 임상교육이 병행되어야 했다. 일신부인병원이 내세운 강점 중 하나는 1인이 최소 20명 이상의 산모를 관리하고 출산을 관찰하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유엔한국재건단(WHO/UNKRA)의 지적에도 제기된 문제였다.¹⁴⁾ 1952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보건 상황을 관찰했던 WHO/UNKRA 사절단은 126쪽에 달하는 「한국 보건 계획 임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의학과 의료의 전반적 상황이 조사,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제기된 조산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조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산사는 가정 방문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가족과 가장 먼저 접촉한다. 많은 국가에서 조산사는 별도의 자격증과 면허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간호 및 조산사가 단일 과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모든 조산사는 장래에 자격을 갖춘 간호사도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소가 모성 및 아동 복지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건소에 임용되기 전에 약 6개월 동안 초등 위생 및 공중보건 및 조산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할 것이다.

간호-조산사는 복지의 증추가 될 것이며 상당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가정을 방문하여 정상 분만을 돕고 산모와 아이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초등 위생 교육을 담당한다.¹⁵⁾

12) 1951년 국민의료법에 따라 산파는 조산원으로, 1987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조산원은 조산사로 호칭이 바뀌었다. 여기에서는 조산사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겠다.

13) 오한영, 「한국의 공중보건, 1951.4」, RG 554, United Nations Command Adjutant General's Section,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Adjutant General Section, Entry A-1 1303, Team Reports, 1951~1953, Box 73, Records Chulla Namdo (3 of 4).

14) 이하 세계보건기구는 WHO, 유엔한국재건단은 UNKRA로 약함.

일제 강점기 조산사가 되려면 산과양성소를 나오거나 자격시험을 치러야 했다. 미군정기에는 간호학교를 나오면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해방 뒤 보건사회부 간호사업국은 간호-조산사 제도를 실시했다. 간호-조산사 제도란 간호학교를 졸업한 간호사가 20명 가량의 분만 실습을 하면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¹⁶⁾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간호와 조산사가 단일과정에 통합되어 있고 조산사는 간호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산사는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모자보건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52년 WHO/UNKRA 사절단은 모자(보건) 복지를 “모성 및 아동 복지 사업은 통합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보건소의 진료소와 가정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훈련된 직원이다. 이 일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병원과 현장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¹⁷⁾ 그리고 국제적 지원은 인력 훈련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다.

부산 일신부인병원이 1952년 9월에 개원해서 1953년부터 조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주 장로교의 지원, 매혜영의 적극적 활동 그리고 WHO/UNKRA와 OEC의 간호-조산사의 양성과 보건소에서의 조산사 역할이라는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15)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33, p.53.

16) 이입하, 앞의 글, 192쪽.

17)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RG 469, pp.54~55.

Ⅲ. 1950년대 부산 일신부인병원 역할

1. 좌춘동, L자형 병원 건축과 조력자들

1952년 9월 17일 부산 일신부인병원은 부산진 교회의 유치원 건물을 빌려 개원했다. 2년 정도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유치원으로부터 이사하라는 압박이 커졌다고 1953년 연간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1953년 4월에 임시 건물을 마련했지만 이미 과수용 상태라서 이동 걱정 없는 장소와 건물이 필요했다.

좌춘동 471번지에 병원부지가 마련되었다. 1954년 3월 24일 건물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땅파기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래 계획대로 건물을 올리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땅을 팠을 때 나온 비탈면 때문이었다. 산비탈을 불도저와 크레인 삼으로 깎아내고 파낸 흙은 군용 트럭에 채워 매축지로 가져갔다. 1955년 연간보고서에 매혜란은 기술자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산이 바다를 덮을 것’이라는 희망을 기술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1955년 3월 큰 사고 없이 병원 건물이 세워졌다. 건물은 L자 모양으로 저장소와 업무 공간은 G층(Ground floor, 1층), 외래환자실은 2층, 입원환자실은 2개의 꼭대기 층을 사용했고, 평평한 지붕은 건조실로 이용됐다.

1957년 1월에 수행된 OEC의 ‘현지 조사 보고서’에 소개된 일신부인병원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일신부인병원은 3층으로 AFAK의 지원에 의해 1956년 건립되었다. 장비는 훌륭하고 사용하기 쉽고 청결하다. 병원의 1층은 산전 산후 클리닉, 산과전문, 소아 클리닉이 있고, 2층에는 6개의 분만실이 있고 자간병동이 2곳이 있다. 병동은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60개의 병상이 있는데 40개의 병상은 정상 분만 출산으로, 20개의 병상

은 조산아 또는 버려진 영아들, 병든 산모의 신생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¹⁸⁾

1952년 20개의 병상으로 개원했던 일신부인병원은 1953년 가건물을 사용하면서 40개의 병상으로 늘어났고, 1955년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면서 60개의 병상을 갖추게 되었다. 개원한 지 2년 6개월 만에 3배로 증가했던 것은 새로운 부지에 병원을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병원 건축은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AFAK)의 지원에 의한 것인데¹⁹⁾ 더 자세한 상황은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겠다.

1954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건설 계획은 부산 미군군수기지 재건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미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의 승낙을 받고 미군대한원조(AFAK) 사업 No.1168 계획에 따라 미 503 공병대 후원 아래 병원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AFAK 사업은 미군에 의한 민간지원 사업으로 병원의 재건도 주요한 사업 중 하나였다. 부산 메리놀 병원도 1954년에 이 사업으로 신축되었다. 미군은 시멘트, 철근, 유리 등의 기본 물자와 건설 장비를 제공했다. 호주 사절단은 노동비용, 군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재들 그리고 병원 운영비를 맡았다.

195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건축 최종 비용은 약 95,600달러이다. 여기에 미군에게 받은 모든 보급품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군사우편으로 26,284달러를 받았고, 한미재단이 15,000달러를, UNKRA가

18) ‘일신부인병원 부산 현지조사’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48; 일신부인병원 건물은 1955년 말에 완공되었지만 사용하지는 못했고 1956년 내내 환자들과 병원 장비를 옮긴 듯하다. 「1956년 연간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문서철에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현지조사에는 1956년에 건립되었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19) 이하 AFAK로 약함.

20,000달러를, 한국 기독교세계봉사회(Korea Church World Service)가 3,000달러를, 회중교회봉사회(Congregational Service Committee)가 1,000달러를, 호주와 미국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온 기부들이 9,091달러를, 베리윌록 밀 계획(Berriwillock wheat scheme)이 918달러를 기부했다.

총 비용 가운데 자금 출처가 확실한 액수는 73,293달러이다. 지원금 중 가장 많은 액수는 군사우편으로 온 26,284달러이다. 이는 부산 미군 군수기지사령부 위트컴(R.S. Whitcome)의 모금에서 온 것이다. 1954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자금이 부산 미군군수기지 사령관 위트컴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보냈다는 것이다. 위트컴은 1953년 부산 미군군수기지 사령관으로 AFAK 기금을 집행했다. AFAK 기금이 부족하면 위트컴은 부족한 자금을 모집했는데 일신부인병원 자금의 일부도 이 모금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캐나다회중교회여성위원회나 기독교세계봉사회는 기숙사 수리나 비품, 인력 파견 등을, 호주에서는 유아복과 산모에게 필요한 물품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부산 일신부인병원은 약품과 의료 장비 등은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와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임시 건축물을 비롯한 병원 건축은 AFAK와 UNKRA의 지원을 받았다. 총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들의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병원 건축 총 비용 95,600달러는 서울대학교 재건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비용보다 많다. 195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복구 개선비용은 6만 3500달러였다. 그리고 7년 동안 의과대학 건물 복구비용은 1만 4700달러였다.²⁰⁾ 즉 부산 일신부인병원이 좌춘동에 자리잡게 된 것은 전쟁과

20)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26쪽.

피난지로서의 부산 그리고 AFAK를 비롯한 원조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부산 일신부인병원이 성장하는 데는 장래 한국사회에서 간호조산사 양성과 역할 기대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1950년대 직원 분포이다. 1953년 1월에 직원은 의사 1명, 행정담당 1명, 간호사 5명, 종업원 4명으로 총 11명이었다. 그해 12월에 의사 4명, 간호사 6명, 조산 교육생 20명, 간호 조무사 3명, 기술자 3명, 사무직원 4명, 종업원 12명으로 직원은 52명으로 증가했다.

<표 1> 1950년대 일신부인병원 직원 수 (단위 : 명)²¹⁾

	1953년	1954년	1955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의사	4	5	5	7	6	4	8
간호사	6	9	13	18	19	23	21
조산 교육생	20	18	22	34	27	31	33
간호 조무사	3	7	9	18	8	7	8
기술자	3	4	4	4	3	3	5
사무직원	4	4	4	5	6	7	8
종업원	12	19	21	27	28	29	30
총계	52	66	78	113	97	104	113

1953년 1월에 의사는 매혜란뿐이었는데 그해 말 4명으로 증가했다. 5월에 1명이 들어왔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레지던트와 인턴이 왔다. 1952년 개원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는 유경순, 김금년(Kim Kum Nyun), 현충훈(Hyun Chung Hoon) 그리고 김금순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병동과 우유배급소에 근무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자들을 채용했고, 사무직원은 주방감독, 출납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도부인 등으로 4명이었다.

21) ‘일신부인병원 연간보고서 1953~1960’,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49.

매혜영은 병원 간호 감독자이자 조산교육 책임자였다. 1953년 1월에 미국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 소속의 갈트(Edith Galt)가 기독교세계봉사회의 소개로 파견 나왔다. 매혜영은 “갈트는 간호 관리 책무를 맡았는데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하며 회중교회위원회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갈트는 매혜영과 같이 간호 총괄과 관리를 담당했다.

매혜란은 1954년도 연간보고서에 “우리는 운 좋게 병원의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충실하고 능력있는 전도부인들을 고용한다.”고 평가했다. 전도부인은 무급으로 일했던 듯하다.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계속 이어진다. 더러운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수도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직원들은 하루에 80리드의 물을 옮기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1955년 보고서에서도 매혜란은 직원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종업원들부터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찬사를 바친다.” “직원들은 종종 과로했고 급여가 다른 곳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지속해왔다.”

병원이 확장되고 업무가 많아지자 개원할 때부터 함께 일한 현충훈은 병원 간호 관리 행정, 김금년은 조산 교육을 담당했다. 현충훈과 김금년은 호주에서의 2년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1958년 7월에 돌아왔다. “그들은 퀸 빅토리아 병원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돌아왔고, 그들을 따르는 간호사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누려는 열망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그들이 이 병원에서 간호사와 조산사 교육을 발전시키고 한국에 간호사와 조산사(역할)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기술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매혜영은 이들을 능력 있는 조력자로 표현했다.

1957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일단 직원 수가 100명이 넘어섰다. 4년 만에 직원이 2배로 증가했던 것이다. 병원 총괄

을 맡았던 매혜란이 1957년 호주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처음으로 한국인이 관리 임무를 맡았고, 사고 없이 운영되었다.

1950년대 병원운영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는 조산교육생이다. <표 1>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직원 중 1953년 38.4%, 1954년 27.2%, 1955년 28.2%, 1957년 38%, 1958년 27.8%, 1959년 29.8%, 1960년 29.2%로 전 직원의 1/3내외를 차지했다. 심지어 1953년과 1957년에는 40%에 이르렀다. 이들은 교육생이었지만 일신부인병원 운영의 큰 역할을 했던 직원이었던 것이다.

2. 병원 운영과 우유배급소

병원 운영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추이, 병원에서의 출산과 비정상 분만으로 인한 수술과 영유아의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는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표 2> 1953~1960년 일신부인병원 환자 기록표 (단위 : 명)²²⁾

	외래환자*					입원환자				
	산과	부인과	기타	총계	일일 평균	산과	부인과	소아	총계	일일 평균
1953	5,007	6,755	6,022	17,784	58	961	112	100	1,173	20.2
1954	10,192	15,074	5,933	31,199	102	1,772	226	203	2,201	35.3
1955	9,193	12,131	4,083	25,407	85	1,454	224	211	1,889	37.5
1957	8,678	10,565	6,868	26,109	85.5	1,345	485	365	2,191	47.5
1958	8,509	10,404	9,062	27,975	91.4	1,483	412	401	2,296	45.6
1959	9,876	12,579	12,120	35,515	112	1,880	547	501	2,928	67.1
1960	9,588	12,337	13,590	35,515	116	1,962	554	663	3,179	84.2

* 외래환자 인원은 신규 환자와 재진료를 받은 환자 합한 총 방문 수이다.

22) ‘일신부인병원 연간보고서 1953~1960’, RG 469, Box 49.

1952년 9월 17일 개원 첫 날 외래환자는 7명이었다.²³⁾ 1953년말 신규 외래환자는 7,318명으로 이를 재진료 받은 환자와 합한 총계는 17,784명이었다. 진료 받은 일일 평균 인원은 1월에 16명이었는데, 7월 이후에 70-80명으로 늘었다. 하루에 140명이 진료 받았던 것이다. 입원 환자는 1,173명으로 일일 평균 20.2명이었다. 이는 병원에서 태어난 영아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일일 평균 입원환자는 1월에 10.9명에서 12월에 30.9명으로 상승했다. 공식적으로 20개 병상이 구비되어 있지만 10개의 캠프용 병상과 2개의 깔개가 더 있었다. 이것들이 모두 사용 중일 때는 외래환자실 소파에서 환자를 재웠다.

1954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1953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11,996명의 신규를 포함한 외래환자 수는 31,199명이었다. 일일 평균 102명이 병원을 방문했다. 이를 1954년 보고서에서 “1952년 병원 문을 연 이래로, 우리는 20,000명의 신규 환자들을 돌봤는데 이는 부산 인구의 50분의 1에 해당한다.²⁴⁾ 인근 지방 방문 때, 맥켄지는 병원을 아는 세 명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다.”라고 기록할 정도였다. 7월에는 일일평균 120명이 찾아왔고 입원환자의 과잉수용은 외래환자실 보다 더 심각했다. 일일 평균 35.3명이 입원했는데 50명의 입원환자로 병원이 가득차기도 있었다. 입원환자 인원은 1954년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매혜영과 매혜란의 적극적 활동과 홍보인 듯하다. 1954년은 일신부인병원이 부산의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존립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었으므로 매혜영과 매혜란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부산 여러 지역을 방문해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의 존재를 알렸던 것이다.

1955년 외래환자 부서는 9,455명의 신규환자들이 찾아왔고, 일일 평

23) 이영복, 『역사를 통해 본 비상시 간호활동』, 『대한간호』 14-5, 1975, 40쪽.

24) 전전 부산인구는 약 40만 명인데 이를 염두한 것 같다.

군 85명이 방문했다. 1954년에 비해 줄어든 까닭은 우유배급소에 찾아 온 영유아를 따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입원환자 부서는 일일 평균 37.5명에 달했다. 1957년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와 기준이 개선되어 업무가 이전보다 줄었다. 그리고 산과 부서의 재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일신부인병원은 출산 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외래환자의 일일 평균 인원은 1957년에 33.4명, 1958년에 91.4명, 1959년에 112명, 1960년에 116명이었다. 입원환자 인원도 일일 평균 1957년 47.5명에서 1960년에 84.2명으로 증가했다. 1959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바쁜 날은 아마 10월 5일이었는데, 그날 22명이 입원했고, 89명의 환자들이 퇴원했고, 221명의 외래진료 환자들이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기록했다.

병원 운영은 외래환자의 경우 일부 치료비로 충당됐지만 입원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무료 치료를 받았다. 입원환자의 무료 진료비용은 1955년에 52%, 1957년에 56%, 1958년에 88%, 1959년에 36%, 1960년에 45%를 차지했다.

외래환자의 30~40%가, 입원환자의 70~80%가 산과 방문자였다. 1953년 769건의 분만 중 57건은 가정 분만을 했는데 1957년부터 가정 분만은 1건에 불과했다.

1955년 일신부인병원 보고서에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수술은 방광질 누공의 치료였다. 환자들은 매우 고마워했는데, 그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여성들은 밤에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1957년 12월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수술대가 도착했다. 새로운 기구의 도입으로 1959년 대수술은 1958년 169건에서 317건으로 두배로 늘었다.

<표 2>에 따르면 1955년부터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모두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유배급소를 별도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WHO/UNKRA 사절단은 국제적 지원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국제 지원은 인력 훈련과 필요한 물품 제공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는 산부인과 아동복지실을 통해 우유나 분유뿐만 아니라 보조 식품이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다.²⁵⁾

WHO/UNKRA 사절단은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들에게 우유를 무료로 배급하는 우유배급소 설치를 권고했다. 일신부인병원도 우유배급소를 만들었는데 이는 병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표 3>은 우유배급소의 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표 3> 우유배급소 현황²⁶⁾

	1953년	1954년	1955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신규 영유아	46	81	362	464	412	712	807
일일 공급	2,657	14,425	36,800	91,014	84,980	125,909	206,591
예방접종	56	166	516	1,226	857	1,569	1,832
상담방문			475	183	318	615	706
산후방문			254	349	344	449	430

1953년 9월에 문을 연 우유배급소는 연말까지 40명의 영유아들에게 2,657일분의 우유를 제공했다. 1954년에는 81명의 유아에게 14,425일분의 우유가 공급됐고, 166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1955년 우유배급소는 양 질적으로 확장되었다. 신규 영유아 인원은 362명이고 공급량은

25)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RG 469, pp.54~55.

26) '일신부인병원 연간보고서 1953~1960', RG 469, Box 49.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우유 공급은 옥스퍼드 기근 구제 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옥스팜으로 불림)에서 보낸 글락소(Glaxo) 우유의 제공으로 이루어졌다. 글락소 우유는 가장 어린 아기들을 먹이고, 더 큰 아이들은 버터를 섞은 탈지 우유를, 가장 큰 아이들은 탈지 우유를 먹였다.

우유배급소는 우유 보급뿐만 아니라 육아 상담 방문과 출산 후 검진을 받는 산후 방문도 이루어졌다. 1955년에 475명이 육아상담을 받았다. 일신부인병원은 이를 1955년도 상황에서 큰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1958년 육아상담의 참석률은 1957년보다 2배 이상으로 올라 육아 상담과 산후 방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육아 상담 방문의 가장 큰 공헌은 영양결핍의 아이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일이었다. 매혜란은 “영양부족으로 쪼글쪼글해진 죽은듯한 모습으로 사람의 향을 내뿜으며 밝게 웃고 있는 어여쁜 아기들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라며 ‘보람을 느낀다’고 기술했다. 영유아들은 대개 산모가 죽었거나 모유가 나오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렸다. 1955년도 일신부인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362명의 영아들 가운데 116명이 엄마가 없었다. 50명은 입양아들이었고, 66명은 친척들에게 양육되었다. 1957년부터 부산에 산재한 우유배급소들의 협업 작업이 진행되어 명단이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1958년에 412명, 1959년에 712명에게, 1960년에 807명에게 배급되었고 1960년에만 206,591일분의 우유가 제공되었다.

일신부인병원 연간보고서에 우유배급소가 1950년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산모들 중 한 명은 7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6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죽었다. 모유가 부족했지만 우유배

급소 덕분에 작은 여자아기는 잘 자랐고 현재 견고 있다. (1954년 연간보고서)

한 여성이 몸무게 6.25Kg인 22개월 아이, 몸무게 4.30Kg인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병원에 왔다. 남편은 막내 아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사망해서 산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고무신 공장에서 일했다. 아이들의 엄마가 일하러 나간 동안 5살인 맏이가 어린 아기를 돌본다. 만약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4명 모두 굶주릴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가 우유 한 끼를 다 먹일 때까지 병원에 들어오도록 했고, 우유배급소에서 2살 난 아기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일당 60센트를 주기위해 부조금을 사용했다. 그는 집에서 생활하고 그들이 건강해 질 때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될 것이다. (1959년 연간보고서)

1959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유배급소는 일신부인병원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병원에서 태어나는 약 1/3의 아기들이 출산 후 검진을 위해 돌려보내지며, 706명의 추가 아기 방문자들이 무게를 재고, 백신접종을 위해 몰려들었다. 상당한 수의 엄마들이 여전히 아이들이 아프거나 우유가 필요하지 않다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며 매혜란은 우유배급소 운영 이유를 밝혔다.

1955년에 254명이, 1957년에 349명이, 1958년에 449명이 출산 뒤 검진을 받았다. 산모들은 일반 관리와 예방접종을 위한 육아 상담을 받도록 격려 받았다. 육아상담은 1955년에 475명이, 1958년에 318명이, 1960년에 706명이 받았다. 예방 접종은 두창,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리고 투베르쿨린(T.B.&Tetams)을 접종했다. 1955년 516명, 1957년 1,226명, 1959년 1,569명, 1960년 1,832명이 접종을 받았다.

3. 「일신부인병원」 보고서에 기술된 부산지역의 산모와 유아의 모습

1953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매혜란과 매혜영은 한국은 여전히 가정 분만이 80% 이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비정상 분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일신부인병원은 비정상 분만에 대비했다.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경제적 상태는 다양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북적이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했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오는 약간의 중산층도 있었다.

부유층과 중산층보다 병원의 관심을 받은 계층은 하층민이었다. 판지 상자로 만든 판잣집이나 피난민 수용소에 사는 이들, 아예 집이 없는 이들이나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959년 연간보고서에서 “전도부인은 나에게 최근 퇴원한 두 환자들의 ‘집’에 대해 언급했다. - 돼지조차 살기 적합하지 않는 어둡고 매우 좁은 방. 많은 아기들이 버려졌다는 건 놀랍지도 않았다. - 태어난 지 이틀 된 3명의 신생아들이 우리의 유아원으로 들어온 건 며칠 전이었다. 이러한 유아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해서 우리는 입양 가정을 찾을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라며 하층민의 주거환경과 영유아 사망률의 관련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여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954년 보고서에 따르면 “버려진 아기들은 큰 문제들을 안고 왔다. 남아들은 쉽게 아기가 없는 가정에 보내졌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 여아들이었고, 우리는 여아들이 입양될 가능성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일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지만 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은 이미 오래 전에 다 찼다. 여아들은 누가 봐도 가면 거의 죽는 게 확실한 곳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다.”라고 기술했다. 1950년대 전후사회에서 여아들은 버려졌으며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이다.

보고서에 기술된 부산의 일상은 이렇다. “도시에 궁핍한 난민들이 2년전 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유로운 사람들보다는 궁핍한 이들이 더 많다. 그리고 몇 주마다 한 번씩 겨울에는 어딘가에 큰 불이 나고, 다른 수백의 가족들은 노숙자가 된다. 12월의 화재이후로, KCAC는 임신한 여성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활동을 준비했다.” 1950년대 부산은 잦은 화재로 하층민들은 난민의 처지와 노숙자 되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신부인병원은 이들 난민들 중에서 임신한 여성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일들을 찾아 나섰다.

1954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병원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서 우리는 서울과 다른 지방에서 찾아온 부인들의 문제들을 해결했다. 맥켄지는 출산 전 산모들에게 일주일 후에 오지 않은 것에 편지를 주었다. 그제야 여성들은 늦은 아침이라도 여기에 오기위해 오전 4시부터 길을 나섰다.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고무적인 특징은 작년에 의식 없이 발작하며 병원으로 들어온 여성들의 수인데, 현재 그들은 다음 임신에서는 규칙적인 검사를 미리 받으려 한다. 우리는 그들 중 몇몇의 두번째 출산을 도왔고, 상당수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병원에 오고 있다.” 매혜란은 신규방문과 함께 재방문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재방문 인원수는 1953년에 10,466명, 1954년에 19,203명, 1959년에 24,433명으로 늘었다. 재방문의 성과는 병원이 점차 자리잡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매혜란은 ‘변화된 삶을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일상에 찾아온 소소한 평화와 미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신부인병원의 운영이 운영자에게 보람된 일임을 아래의 사례들은 알려준다.

“이러한 노력이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그들의 애처로운 생활, 곤궁, 노숙, 그리고 전쟁으로 죽기 일보 직전 속에서 엄마들과 아기들의 목숨

을 살리고 있는가? 일부는 우리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39세의 여성이 그의 첫 번째 아기를 낳고 당당히 집으로 데려갈 때 지은 미소를 보는 것,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불편한 통증을 치료해 준 간단한 수술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 몇 주 전만해도 늙은 남자의 피부처럼 주름이 자글자글 했던 남자 아기가 통통한 얼굴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IV.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1. 임상 실습 위주의 조산교육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야만 우리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는 40명의 간호사와 6명의 의사들에게 매년 교육하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교육시키고 있다. 몇 년 안에, 이는 (임상)실습 기준에 차이점을 만들 것이다. (1953년 연간보고서)

1953년 연간보고서에 드러난 매혜영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매혜영은 일신부인병원의 미래를 조산교육에 두었다.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특징은 임상 실습이 가능한 점이다. 매혜영은 임상 실습 교육방식이 다른 곳과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했다.

매혜영은 설립 때부터 간호과장으로 역임하며 조산교육을 맡아 직접 교육생들을 지도했다. 매혜영은 조산사는 먼저 간호사 자격을 가져야 하고, 이들이 조산교육을 받아 농촌지역까지 모자보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²⁷⁾ 매혜영의 생각은 WHO/UNKRA 사절단 보고서에서 장래 한국의 공중보건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잘 맞았다.

1953년 5월 1일, 7명의 교육생이 들어왔다. 1954년 매혜영의 편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신부인병원 조산교육생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은 치루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와 졸업한 간호학교장이나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별도의 등록비나 교육비는 없었으며 교육생은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아 병원에서 약간의 용돈을 받았다.

<표 4> 조산교육 과정²⁸⁾

년도	기간	인원(명)	기수
1953	5월 ~ 10월	7	1
1953~1954	8월 ~ 1월	10	2
1953~1954	11월 ~ 4월	10	3
1954	2월 ~ 7월	10	4
1954	5월 ~ 11월	10	5
1954~1955	8월 ~ 1월	10	6
1954~1955	11월 ~ 1월	10	7

제1기생 교육은 1953년 10월에 마쳤다. 7명 중 5명은 서울, 대구 그리고 충주 간호학교로 갔고, 1명은 일신부인병원 직원으로 그리고 다른 1명은 결혼을 했다. 제2기생은 10명으로 8월에, 제3기생은 10명으로 11월에 교육이 시작했다. 따라서 1년에 40명의 간호사들을 교육시켰다. 1953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왔으며 12개의 간호학교의 대표들이라며 “한국에서 산과를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라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초기에 매혜영은 조산교육의 불확실

27) 김효진, 앞의 논문, 2008, 67쪽.

28) ‘일신부인병원 연간보고서 1953~1960’, RG 469, Box 49.

한 미래를 토로하고 있다.

조산사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에 부응할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간호학교를 졸업한 간호사들이 이 분야에서 불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산사 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조산교육 과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지 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을 마쳤을 때에 그들은 병원으로부터 증서를 받는 데 이는 그들이 실무훈련을 마쳤다는 의미이지 공식적인 승인장은 아니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했기에 이곳에 찾아온다.(1954년 연간보고서)

매혜영은 1954년에 조산 교육의 불투명한 미래에 고민했지만 조산 교육의 발전을 보는 것은 만족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간호사들은 한국의 모든 지방에서 부산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간호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 그들은 우리 학교에서 자격을 받고 조산 업무를 하는 이들이며 일부는 그들의 학교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실무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산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955년 연간보고서에도 그는 “우리만이 오직 한국에서 조산사 교육에 노력을 쏟고 있다. 간호학교가 있는 일부 병원들은 학생들을 받아 줄만큼 책무를 맞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일신부인병원 조산 교육은 1954년 이후 자리 잡아갔다. 10명의 간호사들이 3개월마다 입학했고, 학생들은 적어도 20명의 분만실습을 했다. 정규과정은 1959년에 6개월에서 9개월로, 교육생들의 분만 수도 30~40명으로 늘렸으며 수술과 조산아(早産兒) 관리 실습도 진행되었다.

조산교육의 정규 과정 이외에 단기 과정도 운영되었다. 1953년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학교 학생 3명이 1개월 단기교육을 받았다. 1954년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호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이 윤번

제로 1-2개월 수업을 받았다. 이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온 까닭은 조산 업무를 위한 실무훈련 시설들이 이들 병원 안에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실습을 제공할 수 없었던 서울대학교병원과 충주지방병원 간호학교는 학생들을 운번제로 보내왔다.

1957년도에 단기와 정규 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총수는 무려 285명이었다. <표 5>에 따르면 정규과정 45명, 단기 1개월 과정 171명, 2개월 과정 19명, 8일 과정 50명이었다. <표 5>는 1957년 단기와 정규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을 표시한 것이다.

<표 5> 1957년 조산교육²⁹⁾

과정	기간		인원
정규	6개월		45
단기	1개월	부산대학병원	24
		서울대학병원	82
		충주지방병원	57
		육군간호학교	8
	2개월	서울대병원 간호행정	10
		서울대병원 공중보건	9
	8일	유니세프 후원 재교육	50

매혜영이 안식년으로 10월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교육은 갈트와 최정자가 함께 수행했다. 최정자는 세브란스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했고 일신부인병원 산과전문 교수의 보조자였다. 그는 1957년 1월에 OEC가 제안한 뉴질랜드로의 유학을 거절했다. 이유는 매혜영이 돌아올 때까지 일신부인병원에 6월 1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29) ‘일신부인병원 연간보고서 1957’,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49.

1950년대 병원 가운데 독일적십자병원, 동대문병원, 일신부인병원만이 일정 규모의 산과 병상수를 갖추어 조산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동대문병원은 이대간호학과 학생들에게만, 적십자병원은 자체 간호사들에게만 임상실습이 주어졌다. 따라서 1950년대 유일하게 조산교육을 수행한 곳은 일신부인병원이었다. 일신부인병원은 1950년대 산과병상, 산전클리닉을 갖추었고 교육생은 전국 각지에서 조산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왔다.

2. 현지 조사에 드러난 교육 현황

OEC의 일신부인병원 현지 조사는 1957년 1월에 수행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병원에서 1개월간 학습하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조산교육을 점검하는 데 있었다.

현지조사는 1월 7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총감독자 매혜란, 간호-조산 교수이자 책임자인 갈트, 교수인 최양자 그리고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다. 보고서에 드러난 정규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 141명의 간호-조산사들이 졸업했다. 조산사들은 전국에 걸쳐 고용되었다. 6개월 정규과정의 커리큘럼을 동봉한다. 6개월 동안 그들은 몇 차례의 시험을 치른다. 3개월 지난 뒤 구술시험을 치른다. 그 뒤 교육생들에게 정상 분만이 주어진다. 마지막 3개월 동안 간호사들은 20명의 정상 분만을 행한다. 그들은 임부와 아동 보건 관리를 마쳐야 하고, 각자 연구할 사례와 산모들을 가르칠 훈련도 주어진다. 마지막 검사는 졸업 전에 매혜영이 한다.”³⁰⁾

단기과정을 받는 간호사들에 대한 관찰 내용은 아래와 같다.

30) ‘일신부인병원 부산 현지조사’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48.

1월 1일에 10명의 간호사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1개월간 산과전문의 과정을 받는다. 갈트는 2곳의 병원에서 10명이 왔다고 한다. 학생들은 9일 동안 클리닉과 분만실에서 일하고, 7일 동안 건강한 신생아 병동에서 일한다. 학생들은 밤마다 일정관리를 한다. 분만을 관찰하기 위해 가정방문도 나간다. 교육생들은 매일 6-8시간 병원에서 근무한다. 1주에 1번 갈트와 최양자에게 1시간씩 강의를 받는다. 강의 뒤에 모든 문제를 의논한다. 1개월 간 학습이 끝나면 50개 항목의 시험을 본다. 1개월 동안 학생들은 정상 분만을 포함해서 비정상 그리고 이상분만까지 약 83건 중 14건을 관찰할 수 있다.³¹⁾

OEC 조사관은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간호학교 졸업학생들과 회의를 했고 그들이 관찰한 것을 논의했다. 교육생들은 교육과정을 대체로 만족했지만 분만을 실행하지 않았고 조산아의 관리를 못한 사실에 실망했다. 일신부인병원이 관찰만 허용한 것은 그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전혀 실습을 받지 못해 조산아 관리나 분만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OEC 현지조사관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1개월 과정은 간호사들에게 불충분하다. 10명의 간호사는 작업을 수행할 때 조산의 책임성을 크게 깨달았다. 그들은 조산아 관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산전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배웠다. 임신 기간이 있는 산모 관리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들은 분만 차트를 정확하게 쓰는 법을 배웠다. 맥켄지와 갈트 그리고 잘 훈련된 직원은 열심히 일했고, 기술도 뛰어났다.³²⁾

OEC 자문단은 “1개월 과정에 산과의 기본훈련, 조산 그리고 아동 간호 관리를 한다면 좀 더 가치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지방병원은 일

31) ‘일신부인병원 부산 현지조사’ RG 469, Box 48.

32) ‘일신부인병원 부산 현지조사’ RG 469, Box 48.

신부인병원의 조산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³³⁾ 즉 OEC 자문단은 현지 조사를 통해 일신부인병원의 조산 교육을 높게 평가했고 여기에서 교육받은 간호사이자 조산사들이 모든 지방병원에 근무해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평가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임상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이었다. 매혜영은 모든 학생들이 정규 간호사들이었고 이미 산과 이론을 학습했기 때문에 실습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산전·산후의 치료, 정상아와 조산아의 출산 기술과 치료, 가정 분만의 경험 등을 현장에서 쌓았다.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 가정 분만을 할 때에도 학생들을 동행시켰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961년에 간호교육이 이론 중심의 교육 방식 대신에 점차 시범-토론 방식으로 전환시켰고 실험실 실습이 일주일에 두 시간씩 감독 아래 병원실습이 이루어졌다.³⁴⁾ 그런데 부산 일신부인병원에서는 1953년부터 임상 실습 위주의 교육방식과 병원실습으로 조산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3. 졸업생 관리와 워크샵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는 회의를 1년에 한 번 계획하는데, 이는 졸업생들이 만나서 그들의 문제와 새로 배워야 할 방법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간호업무 관련 책이나 학술지가 전혀 없으므로 간호사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적으로 최신 정보들을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1954년 연간보고서)

1954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생 워크샵은 조산 지식 정보와 실

33) ‘일신부인병원 부산 현지조사’ RG 469, Box 48.

34) 이왕준, 앞의 글, 409쪽.

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졸업생 워크샵은 1955년부터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 졸업생 모임 일정은 워크샵, 간략한 사업(업무) 회의, 조산사들의 경험 듣기, 병원 병동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매혜영은 ‘졸업생들에게 부산에 오는 시간과 비용이 가치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조산사의 개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그들이 비슷한 경험을 들 때마다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1957년에는 이를 동안 80명의 졸업생이 연간 모임에 모였고, 1958년에는 40명이 참석했다.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꼈는데 특히 시골지역에서 올라오는 조산사들에게 이 모임의 가치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조산사들의 개인 경험을 나누는 자리는 각자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향후 지역에 돌아가 난제 해결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지역에서 조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험들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첫 아이를 가진 어느 산모는 분만이 너무 느렸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산모의 친척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를 불러 출산을 서둘렀다. 결과적으로 아기는 유산되었다. ‘우리가 너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그들은 조산사에게 말했다.”³⁵⁾

조산사 역할을 인지하고 정체성을 갖기까지의 효과를 매혜영은 이렇게 평가한다. “나는 이 자리가 좌절과 긴장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편안과 격려는 그들이 각자의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사실에 도움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 역시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조산사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도록 격려 했다.”

35) ‘일신부인병원 연간보고서 1959’, RG 469, Box 49.

일신부인병원 병동 방문 시간은 질문과 논의를 위한 편안한 자리였다. 병동 방문 시간의 질문과 논의는 졸업생들에게 조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

<표 6>은 1957년 조사된 것으로 6개월 과정을 마친 조산사들의 고용 상태를 알려준다.

<표 6> 일신부인병원 출신 조산사 고용 조사³⁶⁾

병원	인원	병원	인원	병원	인원
<서울>		<부산>		청주지방병원	1
세브란스병원	7	일신병원	17	청주기독병원	3
동대문병원	2	대학병원	4	진주지방병원	3
서울시립병원	2	수송병원	1	대전지방병원	3
보훈병원	2	가톨릭병원	1	인천지방병원	2
전기회사병원	1	세이브아동자금	2	신생결핵요양소	1
여자의대병원	3	독일병원	2	국립결핵요양소	1
국립대병원	1	아동자선병원	2	포항장로병원	1
이화여대병원	2	스웨덴병원	1	삼성병원(안성)	1
<대구>		침례병원	5	삼척광산병원	1
대구시립병원	1	기독병원	1	개정병원	4
장로병원	2	<광주>		구룡포병원	1
대학병원	5	대학병원	6	삼교병원	1
적십자병원	2	유인병원	1	미 제5공군 야전병원	1
		중앙병원	1	부산고아원	1
		지방병원	2		

1957년 2월 OEC 현지조사 때 정규과정을 마친 졸업생은 대략 137명 정도였다. <표 6>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7명, 일신병원 17명, 광주대학병원 6명, 대학병원 5명, 침례병원 5명 등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일하

36) ‘한국에서 조산 훈련의 상황, 1957. 4. 11’, RG 469 Box 48.

는 간호-조산사는 101명이다. 이 이외에 개업 11명, 결혼 21명, 외국 유학 4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6>에 따르면 일신부인병원 교육을 받은 간호-조산사들이 전국에 걸쳐 고용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매혜란은 1954년 연간보고서 말미에 ‘감사인사’ 항목을 별도로 작성했다. “나는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과의 훌륭한 협업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메리놀병원은 어려운 연구검사를 도왔고 우리는 자주 아이들의 상태를 메리놀병원에 물었다. 대신에 메리놀병원은 우리에게 힘겨운 산과 사례들을 보내왔다. 제7일안식교병원은 연구 업무를 해주었다. 스웨덴 적십자 병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할 때 혈액은행을 운영해 주었다. 우리는 스웨덴 적십자 병원과 독일 적십자 병원에 수술 환자를 보냈다. 산과학을 전문한 3명의 미군 군의들은 한국인 의사들에게 자문과 강의를 해주었다.”

매혜란과 매혜영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다 많은 일을 수행했고 그것을 달성했다는 사실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연간보고서에 짙막하게 기술되어 있다. 1959년 연간보고서 서두에 그들은 ‘적들이 많지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인용했다. 그만큼 일신부인병원이 자리 잡기까지 힘겨운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힘겨운 과정을 ‘적’으로 표현했지만 가치있는 일임을 인정했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었다. 1960년 연간보고서에도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지난 밤 일부의 직원들은 몇 주 전 유아원으로부터 사랑스럽고 건

강한 아이들을 입양한 부모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한 가정의 비극은 다른 가정에 풍요를 가져왔으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와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다”라고 말미에 적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일신부인병원이 자리 잡기까지 다양한 단체와 인물들의 지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장로교, AFAK, UNKRA, OEC, 미국과 호주에서의 다양한 기부품과 기부금, 미군 군의들, 부산미군군수기지사령부, 부산지역 병원들, 옥스팜 등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지원은 피난지 부산이었기에 가능했고, 이는 부산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병원 건축할 때 AFAK에 의한 노동력 동원과 일신부인병원의 조산 교육생들이다. AFAK는 장비와 건축자재를 지원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력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도로건설이나 재건과정에서 노동력은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일신부인병원 인력의 1/3을 차지했던 조산교육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간호사 자격을 갖춰 병원이 토대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위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역사를 만들었던 주체들인 조산교육생과 노동력으로 동원된 이들의 지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는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조산 교육생들의 활동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 일신부인병원을 구성하는 주체인 조산사들의 구술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들의 구술이 보고서에 드러난 역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 1951.
일신기독병원, 『일신기독병원 40년사』, 1993.
김효진,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1952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연세의사학』 11-2, 2008.
대한병원협회, 『병원탐방 부산일신기독병원』, 『대한병원협회지』 13-10, 1984.
이영복, 『역사를 통해 본 비상시 간호활동』, 『대한간호』 14-5, 1975.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이임하, 『1950년대 여성 전문 인력으로서의 조산사의 양성』, 『사회와 역사』 111, 2016.

2. 자료

- 『민주신보』 1951. 1. 16. ‘조병옥 내무부장관, 피난민 분산대책에 대한 담화 발표’
『민주신보』 1951. 1. 23. ‘보건부장관 吳漢泳, 국민보건대책과 전염병 방지대책에 대해 언명’.
- RG 286,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Mission to Korea/
Excutive Office, Box 20.
-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1951, Entry UNCACK
Unit 11110, Box 21, Weekly Activities Report Month of July(3 of 5)
-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33.
- RG 469, ICA U.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t Services. Public Health
Division, Unclassified Subject Files, 1952-1961, Box 48
- RG 554, United Nations Command Adjutant General's Section,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Adjutant General Section, Entry A-1 1303,
Team Reports, 1951-1953, Box 79; Mar; Kyongsang Namdo, sep. 53 1953.

| Abstract |

Training midwives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 with a focus on IL SIN Women' Hospital -

Lee, Im-Ha

This paper sheds light on midwife education carried out at IL SIN Women' Hospital in Busan, paying attention to the locality and historicity related to Busan. This hospital was where clinical practices were carried out alongside theoretical education in the 1950s during the Korean War and a relevant annual report referred to it as “The only place in Korea where midwifery service-related education is carried out.”

IL SIN Women' Hospital was run by Helen P. Mackenzie(Mae Hyeran) and Catherine Mackenzie(Mae Hyeyeong), the daughters of James Noble Mackenzie, a missionary dispatch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and his wife Mary Kelley. The two sisters arrived in Busan in February 1952 and opened the hospital in September 17 of the same year.

Back then, about a third of nurses and midwives of the country went missing in the turmoil of the war, and thus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people for such services was needed above all else. For midwifery service-related education, clinical practices had to be carried out along with theoretical education. A specialty that this hospital was known for was its educational program designed so that one midwife could take care of at least twenty mothers and watch their delivery process.

The midwifery service-related education of this hospital came to be firmly established in 1954 and onward. During the 1950s, the hospital came to be equipped with obstetric beds and a pregnancy care clinic. The hospital

became flooded with aspiring midwife candidates from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 Busan served as the provisional capital of the country and a military logistics base, while the hospital received support from many organizations and benefactors including the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AFAK, UNKRA, OEC, and U.S. Army surgeons, the Pusan(Busan) Military Post, local hospitals, Oxfam, etc.

At that time, the midwife trainees accounted for a third of the personnel at IL SIN Women' Hospital. They eventually became qualified as midwives and nurses and played critical roles in the hospital's operation. We should commemorate all those who provided generous support for this hospital, which has set an example for national midwife service.

Key Words : Busan, Refuge, Korean War, Midwife, IL SIN Women' Hospital